

史上名人의 二十歲 ;

栗谷先生의 退佛還儒[上]

崔益翰

栗谷先生은 일찍이 이러한 學的 評論을 하였다.

濂洛以來로 群賢의 大成을 모아 折衷하여 博과 約이 兩至하고 □□이 分明
하야 學者로 하여금 可히 依據하야 道에 들어가게 함은 朱子같은 이가 없다.
우리 東方에 있어선 能히 道學을 倡明하고 君과 民을 堯舜처럼 만들기를 自
己任務로 한 者는 靜庵같은 이가 없고 朱門의 成法을 □守하야 躬行心得하야
可히 後生의 矜式이 될 만한 者는 退溪같은이가 없다 하였다.(栗谷年譜에 依
함)

그래서 先生은 海州石潭에 隱屏精舍를 짓고 精舍의 北便에 朱子祠를 세우
고 靜, 退兩賢을 配享하려하야 모든 規式이 이미 作定되고 祠宇는 미처 設立
되지 못했더니 先生卒後二年에 學徒는 先生의 遺志를 비로소 이루었다.

先生의 靜, 退崇拜는 단순히 理論的 崇拜가 아니었다. 麗末부터 行해온 程
朱學은 李朝二百年間에 靜庵의 政治的 理想과 退溪의 純深한 哲學을 兩大產
物로 하였으며, 先生은 이것을 받아 다시 集成綜合한 偉□을 나타 내었다 할
것이다.

이는 勿論 時代的 發展의 關係도 잇었거니와 先生의 卓越한 才局과 通博
한 學問과 經綸的 政見이 朝鮮儒敎史上에 잇서 重大한 地位를 높게 占領한
바이다.

先生은 靜庵의 政治的 理想과 退溪의 純深한 哲學을 特히 表明한 以外에
또 한 가지 要素를 高□하였으니 이는 徐花潭의 自得的 精神이다. 先生은 일
찍히 花潭贈□□에 잇어서 宣祖大王의 下問에 이러케 奉答하였다.

그의 功夫는 진실로 初學이 맞당히 본받을배 아니요. 그 學은 橫渠에서 나
왔는데 그 著書가 聖賢의 旨에 膺合하다면 臣의 알 수 없는 바이나 다만 세
상에서 일은 바 學者는 先儒의 說을 단순히 模倣해 말할 뿐이요. 心中에는
아무 所得이 없으되 敬德은 深思造詣가 自得之妙를 만히 가져서 실상은 文

字言語의 學이 아닙니다.(上同)

이러케 先生은 模倣을 나뉘어놓고 自得을 貴히 녀겼다. 自得之妙에 있어선 先生은 花潭을 退溪以上으로 評價하였다. 同時에 先生의 學說은 明快□□해야 다른 儒賢에서 보기 어려운 自得의 氣分이 全體에 □溢하다 할 것이다.

그러나 이른바 言語文字의 學이 아닌 自得之妙란것은 先生이 일찍이 禪佛의 學에서 맞본배 적지 안 헛을 것이다. 先生은 十九歲에 金剛山寺에 들어가 佛經을 읽고 禪에 參入하여 靜坐□思 □食을 잊은 지 오래 었다. 後來 佛說의 虛妄을 깨닫고 다시 儒敎의 實踐으로 돌아왔엇지마는 한동안 如來의 法門에 依歸하여 眞如涅槃의 三昧境地에서 □에 잠겼으니 自得에 對한 □□은 □耳之學에 골몰하던 當時□土에 比하여 그 內面的 □□를 □日□□할 수 없는 것이다. 뿐만 아니라 佛을 버리고 儒로 回□한 □□그것도 또한 自得의 氣□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다. 後來四七理氣說과 其他理論에 있어서 어느 것이 明快□□해야 一刀兩段의 感을 주지 안는 것이 없다. 先生은 朱子의 學派오. 靜退의 後□者이면서 오히려 自得을 高□하여 一家의 成見을 樹立한 大儒이다.

先生은 儒에서 佛로 들어가기는 十九歲즉 明宗九年(1□□4)의 일ियो. 佛에서 다시 儒로 돌아와서 自□文十一條를 짓고 大志를 세워 聖人을 自期하기는 二十世의 일이 었다. 先生의 二十歲時는 先生의 光輝잇는 一生에 있어서 重大한 轉換期이었다.